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78890

2020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흡연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선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흡연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o the Intention to Quit Smoking among Female Smoking Workers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선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흡연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도교수 김 현 례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선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선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진 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신 영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현 례 (인)

201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iv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5

C. 용어 정의 ····· 6

II. 연구 방법 ····· 9

A. 연구 설계 ····· 9

B. 연구 대상 ····· 9

C. 연구 도구 ····· 10

D. 자료 수집 방법 ····· 12

E. 윤리적 고려 ····· 13

F. 자료분석 방법 ····· 14

III. 연구 결과 ····· 15

IV. 논의 ····· 3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론 ····· 42
참고문헌 ····· 45
부록 ····· 5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6
<표2>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 ····· 18
<표3>주요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 19
<표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태도의 차이 ····· 20
<표5>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 ····· 22
<표6>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의 차이 ····· 25
<표7>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효능감의 차이 ····· 28
<표8>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의도의 차이 ····· 31
<표9>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 33
<표10>대상자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Factors Affecting to the Intention to Quit Smoking among Female Smoking Workers

Purpose: This research is a descriptive study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on cigarette smoking female workers' non-smoking intention.

Research Method: Total 239 cigarette-smoking female workers in their 20s to 50s nationwide were surveyed through an online panel research institut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Oct. 30th to Nov. 5th, 2018, and the SPSS PC+21.0 for Windows was utilized in analysing the data for the technical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on subjects' non-smoking intention were identified as the age starting to smoke cigarette (β=0.18, p=.002), the past non-smoking trial or not (β=0.19, p=.001), the non-smoking attitude (β=0.31, p<.001), the subjective norm (β=0.22, p<.001), and the self-control (β=-0.17, p=.003),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the non-smoking intention were found as the non-smoking attitude and the non-smoking trying experience or not. As the results analyzing the fit of regress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odel, it was found that the regression model was significant (F=12.95, p<.001), with a total explanatory power of 29.0%.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promoting the correct non-smoking intention in workplace and in forming the non-smoking culture for each other.

Key Words: Smoking, Intention, Attitudes, Subjective Norm, Self efficacy, Self Control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흡연율은 2007년 25%에서 2017년 21.1%로 감소하였으며, 남성 흡연율은 2005년 45.1%에서 2017년 37%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흡연율은 5.3%에서 5.2%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국민건강통계, 2017). 흡연 여성은 19세에서 60세 미만의 연령대에 대부분 분포되어있으며, 20대가 가장 높고 20~30대의 젊은 여성의 흡연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통계청, 2015).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여성 흡연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흡연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김현숙 외, 2018).

특히 여성 흡연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암, 폐기종 및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증가시킨다(국민건강통계, 2015). 2014년 발표된 미국질병관리 본부의 surgeon general's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은 1959~ 2010년까지 폐암 사망률의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남성이 2배 증가할 동안 여성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하였다(미국질병관리본부, 2017; 김현숙 외, 2018). 여성의 흡연은 특히 임신 중 조산아, 저체중, 자궁 외 임신 등 출산과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다(Vennemann et al., 2012). 최근 스웨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폐경이 빠를수록 수명도 짧아지는데 흡연자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Bellavia et al., 2016). 무엇보다 여성 금연이 힘든 이유는 생리 전 니코틴을 더욱 원하게 되는 호르몬의 영향과 담배 유해 물질에 대한 대사가 쉽지 않은 신체적 특징(남인숙, 2003; 나승일, 2012) 때문이다. 즉, 니코틴 신체 중독성이 남성보다 강하여 금단증상이 심하게 되고 재흡연을 더욱 쉽게 유도한다(김진실, 2018).

국가별 흡연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흡연은 취업의 증가와 밀접한 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련이 있었다(최은진 외, 2008). 서미경 외(2009)의 연구에서 여성의 직업 여부가 흡연경험과 흡연 관련 요인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 직장인의 경우 특정 직업군에 흡연자가 많은 특징이 있다(하영미 외 2016).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직장여성 흡연자는 서비스 및 판매업 5.8%, 기능 단순노무직 4.2%, 사무직 2.2%, 전문행정관리직과 농림어업은 1.8%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7). 업무에 대한 특성과 직장에서 역할의 모호성, 직장 내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직장 여성의 흡연빈도와 흡연량이 증가할 수 있다(강지연, 주은선, 2014; 안성미, 2018).

여성 직장인의 흡연지속과 증가는 직장 내 환경적 요인이 크며, 흡연을 유도하는 주변인이 많고 직장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흡연으로 대응하거나 흡연을 왜곡하는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김영숙, 조현숙, 2008). 그러므로 여성 직장인이 흡연을 하거나 그로 인한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여성 직장인이 담배를 끊는 것을 목표로 금연 의도에 대해서 파악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하겠다(박용준 외, 2017; 이혜원, 2005).

Ajzen (1991)의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 의하면 금연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는 금연 의도이다. 금연은 대상자 스스로 자발적 동기를 활용하여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Hughes, 2003). 금연 의도를 가지는 것이 금연의 첫 시작이며, 유지 조건이기 때문이다(Prochaska & Diclemente, 1983). Ajzen (1991)에 의하면,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행동에 대한 행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로 이루어진다. 또한 Montano & Kasprzyk (2008)의 통합행위이론(Integrated Behavioral Model, IBM)은 계획된 행위이론의 확장이론으로 행위에 대한 의도는 지식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중재될 수 있는데 태도, 지각된 규범, 개인적 역량 3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적 역량은 지각된 통제 및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인 의도는 행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자기통제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는다.

행위 태도는 개인의 인지적 요인 중 하나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행동 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행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금연 행동 예측에 있어 태도의 중요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배진현, 도은수와 서영숙(2014)의 연구는 금연에 대한 태도가 좋아지면 금연 의도가 높아졌고, 송미라와 김순례(2002)의 청소년 대상 금연연구에서 금연 태도가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유혜라, 이선혜과 유태균(2009)의 남성 대상 금연연구에서도 금연 태도가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금연 태도는 금연 의도의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주관적 규범은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연 행동 변화단계에서 흡연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금연하려는 주변인을 따르려는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김영희, 서남숙, 강혜영, 2006; 안혜영, 2001). 즉 주관적 규범은 금연을 유도와 흡연 감소를 동기화시키는 요인(Dozois, Farrow & Miser, 1996)으로 인하여 금연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성 직장인은 직장 조직 환경으로 사회 규범과 조직 환경의 영향을 받아 금연시도나 금연 행동에 결과를 가져온다(류근혁, 2010). 또한, 대상은 다르지만 손교영(2010)의 노인 대상 연구에서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자기통제가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금연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낄수록 금연 의도는 증가할 수 있기에 주관적 규범은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자기통제는 특정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압력정도(Ajzen, 1991)를 의미한다. 흡연 및 금연 행동은 자기통제력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연 의도가 높고 실제 금연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하영미, 정미라, 2015). 즉, 자기통제는 행위의 수행 촉진과 변화 유지를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되며(Godin, Shephard, 1990), 흡연자가 금연이라는 건강 행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의지를 갖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금연을 잘해 낼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각하고 유혹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통제를 측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금연 자기효능감은 흡연을 자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담배를 끊으려는 시도와 의지 및 금연 성공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송선희, 하은혜, 송동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02).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은 직장인은 흡연량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금연을 유지한다(정재선, 2013). 이러한 이유는 금연 자기효능감이 금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해 주며, 개인의 흡연 유혹을 잘 견뎌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리메일링, 하영미, 이정숙, 2018). 또한 흡연을 하고 싶은 유혹상황에서 유혹을 참아 내도록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금연 의도는 높아질 수 있다(도은수, 2015; 손교영, 2010). 그러므로 흡연하는 여성 직장인 대상자에게 금연 행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금연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게 한다면 금연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고(하영미, 2016) 흡연의 유혹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에 금연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요인이라 사료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금연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김경미, 김미진, 2016; 도은수, 2016)과 직장인 대상 금연 방법을 탐구한 연구(리메일링, 하영미, 이정숙, 2018; 문선미, 2016; 정재선, 2013), 대학생의 흡연과 금연 관련 연구(김경아, 2016; 최숙희, 2018)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이나 남성 대상으로 이루어져 여성 직장인의 증가와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시간(박용준, 2017)이 많은데 반해 이들의 금연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여성 직장인의 흡연은 사회적 압력 및 문화적 차이의 부정적 시선으로 흡연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으므로(김현숙 외, 2017). 남성 흡연문제와 다른 시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흡연하는 여성 직장인의 흡연율을 감소와 금연에 대한 중재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흡연하는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주요변수인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의도의 정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5) 대상자의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이 금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용어 정의

1) 금연 태도

이론적 정의: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긍정·부정적 평가의 정도로 행동결과에 대한 감정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의 결정요인으로 결과신념과 행위의 결과평가가 있다(Ajzen, 2011; 정지형, 2018). Ajzen (2011)은 결과신념은 특정 결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가능성이며, 결과평가는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좋고, 싫은 정도라 하였다. 그러므로 금연 태도에서 금연 결과신념은 흡연자가 인지하는 금연 행위로 인해 나타날 결과에 대한 주관적 가능성이며, 금연 결과평가는 흡연자가 갖는 금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좋고, 싫음의 정도를 산출한 것을 의미한다(이혜원, 200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금연 태도는 이혜원(2005)이 개발한 금연 태도로 결과신념 6문항 -3에서 3점까지 측정 가능한 7점 척도, 결과평가는 6문항 1점에서 7점까지 측정 가능한 7점 척도로 두 개의 하부요인을 곱하여 금연 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주관적 규범

이론적 정의: 주관적 규범이란 행위의 수행 여부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을 뜻한다(Ajzen & Madden, 1986). 행위의 수행 여부에 대하여 특정인들로부터 사회적 압력을 느끼는 정도인 주관적 규범의 결정인자는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고 영향을 받는 특정인에 대한 규범 신념과 행위수행과 관련된 특정인들의 생각을 행위 수행자가 전반적으로 따르려는 순응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Ajzen & Madden, 198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손교영(2010년)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흡연자가 금연 행위에 대해 주위 사람들로 받는 압력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자기통제

이론적 정의: 자기통제(Self-Control)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 가기 위해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하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홍현기, 김희송, 김진하, 김종한, 201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는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이 개발한 자기통제 척도를 원저자가 13문항을 선정하여 만든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rief Self-Control Scale, BSCS)를 홍현기, 김희송, 김진하, 김종한(2012)이 번안한 한국어판 자기통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금연 자기효능감

이론적 정의: 금연 자기효능감은 대상자가 금연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이다(Velicer, DiClemente, 1991).

조작적 정의: Velicer, DiClemente, Rossi와 Prochaska (1990)가 개발하여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웹사이트에 연구 목적으로 누구나 개발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척도로 공정현, 하영미(2013)가 한국어와 영어 모두 구사하는 2명의 이중언어 구사자가 원 도구를 번역과 역번역하였고, 최종적 연구팀의 회의를 통해 번안한 설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금연 의도

이론적 정의: 행위 의도란 수행을 얼마나 스스로 열심히 하는지 또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의사를 뜻한다(Ajzen, 2011). 금연 의도란 금연하고자 하는 금연 목표를 '담배를 끊는 것'으로 금연하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혜원, 200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금연 의도는 이혜원(2005)이 개발한 도구로 올해 안으로 담배를 끊을 의도가 있는지, 올해 안으로 담배를 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지, 올해 안으로 금연을 시도할 것인지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I.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흡연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온라인 패널조사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www.embrain.com)'에 등록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59세 이하 여성 직장인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흡연자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시점을 기점으로 '한 달 전부터 한 개 피 이상의 흡연'을 한 적이 있을 시 흡연자로 간주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흡연자가 아닌 경우와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에 응할 수 없는 조건이거나, 설문 도중 설문을 포기한 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16개의 예측변수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적정 표본의 크기는 204명이었으며, 온라인조사 특성상 탈락률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239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39명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총 23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연구 도구

1) 금연 태도

금연 태도는 이혜원(2005)이 개발한 도구로 금연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금연하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한 신념과 그 결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구성되어 결과신념 문항과 결과평가 문항을 각각 곱하여 합산한 값을 의미한다. 결과신념은 흡연에 대한 인식과 흡연으로 인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금연에 대한 신념으로 '올해 안으로 금연하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해 줄 것이다','올해 안으로 금연하는 것은 담배로 인해 입 냄새를 없애줄 것이다' 등의 6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로 측정한다. 결과평가는 금연한 후 결과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 6문항으로 '동의하지 않는다'(-3)에서 '동의 한다'(3)의 7점 척도로 측정한다. 결과평가의 7점 척도는 중간 값 0에서 -3, +3으로 한 것은 결과신념 값과 결과평가 값을 곱하여 금연 태도 점수를 내는데 태도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측정된 결과신념과 결과평가를 금연 태도로 계산법은 결과신념 6문항과 이에 상응하는 결과평가 6문항을 문항별로 각각 곱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총점으로 계산한다. 총점은 (7×±3)×6=-126에서 +126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혜원(2005)의 결과신념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93, 결과평가는 Chronbach's α=.93이었다. 본 연구에서 결과신념 Chronbach's α=.94였고, 결과평가는 Chronbach's α= .96이었다.

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손교영(201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 strength)은 흡연자가 금연 행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회적 압력 정도를 말하며, 규범적 신념과 순응 동기로 구성된다. 규범적 신념은 금연 행위와 관련된 영향을 받는 특정인들에 본인의 개별적 신념을 말하며 6문항 7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이다. 순응 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는 흡연자가 금연행위와 관련된 특정인들의 생각을 전반적으로 따르려는 정도를 말하며 6문항으로 7점 척도로 '동의하지 않는다'(-3)에서 '동의 한다'(3)로 측정한다. 손교영(2010)은 도구에서는 규범 신념과 순응 동기를 양극 점수(-3에서 3점으로)로 측정하는 것이 다른 변수와 상관관계가 더 높다는 보고 순응 동기의 측정을 -3, +3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금연 태도는 규범적 신념 6문항과 이에 상응하는 순응 동기 6문항을 문항별로 각각 곱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계산한다. 총점은 (7×±3)×6=-126에서 +126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력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교영(2010)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81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87이었다.

3) 자기통제

자기통제는 Tangney & Baumeistrer (2004)이 개발한 13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rief Self-Control Scale, BSCS)를 홍현기, 김희송, 김진하, 김종한(2012)이 번안한 도구로 척도의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기통제와 관련성이 있는 지연 행동, 대인관계, 인터넷 중독, 우울감, 시간관 척도로 타당성을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총점은 13부터 6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홍현기, 김희송, 김진하, 김종한(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70이었다.

4)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자기효능감은 Velicer, DiClemente, Rossi와 Prochaska (1990)가 개발하여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웹사이트에 연구 목적으로 모두가 사용하도록 공개한 원 도구를 공정현과 하영미(2013)가 한국어와 영어 모두 구사하는 2명의 이중언어구사자로 원 도구를 번역·역번역 하였고, 최종적으로 연구팀 회의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통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도구이다. 도구는 총 9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의 범위는 9~45점이며 '전혀 유혹 못함(1)', '어느 정도 유혹 못함(2)', '보통(3)', '어느 정도 유혹 함(4)', '매우 유혹 함(5)' 5점 척도로, 모든 문항은 역산으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94였고, 공정현과 하영미(20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81이었다.

5) 금연 의도

금연 의도는 이혜원(2005)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나는 올해 안으로 담배를 끊을 의도가 있다', '나는 올해 안으로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올해 안으로 금연을 시도할 것이다' 총 3가지 문항으로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이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혜원(2005)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98이었다.

D.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이었으며, 흡연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여성 흡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자유롭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여론조사기관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설문을 의뢰하였다. 본 연구자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1) 설문지 작성 단계 시 불량검증 문항 체크 2) 조사 참여 요청 e-mail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시 연구윤리 전달 3) 온라인 실시 단계 시 수치형 자료 입력 제어 4) 데이터 검증단계에서는 패널 DB를 활용하여 직장인 2명을 통해 응답시간 검증, 검색 예상자 제어와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온라인으로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얻었다. 온라인 설문지는 모두 개별화된 ID만을 부여하고 약 15-20분 내외로 자기 보고식 설문에 응답하여 총 239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대상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엑셀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였다.

E.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윤리적 고려를 위해 C대학교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1041055-AB-N-01-2018-48)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참여로 인해 기여하는 점과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도중에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및 연구종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됨을 공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및 동기 부여를 위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결과,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이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의도와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3) 금연 의도와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금연 의도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포함하여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이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II.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총 여성 239명으로 연령별로는 20대 105명(43.9%), 30대 96명(40.2%), 40대 34명(14.2%), 50대 4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는 미혼 156명(65.3%), 기혼 78명(32.6%), 기타 5명(2.1%) 순이었고 거주형태는 가족과 동거 179명(74.9%), 자취 57명(23.8%), 기타 3명(1.3%)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보통임 106명(44.4%), 건강함 98명(40.9%), 건강치 않음 35명(14.7%) 순이었다. 직급은 평사원 98명(41.0%), 대리 이상 55명(46.9%), 주임 29명(12.1%) 순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9)

일반적 특성	구분	n(%)	Mean±SD
연령	20-29	105(43.9)	32.26±6.96
	30-39	96(40.2)	
	40-49	34(14.2)	
	50대	4(1.7)	
결혼 유무	미혼	156(65.3)	
	기혼	78(32.6)	
	기타	5(2.1)	
거주형태	가족과 동거	179(74.9)	
	자취	57(23.8)	
	기타	3(1.3)	
건강상태	건강함	98(40.9)	
	보통임	106(44.4)	
	건강치 않음	35(14.7)	
직업	생산기술직	8(3.3)	
	전문직	23(9.6)	
	경영관리직	13(5.4)	
	사무직	186(77.8)	
	사업자영업	2(0.8)	
	판매서비스직	7(2.9)	
직급	평사원	98(41.0)	
	주임	29(12.1)	
	대리 이상	112(46.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가족 흡연 여부는 있음 139명(58.2%), 없음 100명(41.8%)이었고, 흡연 시작연령으로는 20대 131명(54.8%), 10대 94명(39.3%), 30대 이상 14명(5.9%) 순이었고, 평균 20.47±4.61이었으며, 총 흡연 기간은 5년 이하 53명(22.2%), 6-9년 61명(25.2%), 10-14년은 53명(22.2%), 15년-19년 42명(17.6%), 20년 이상은 30명(12.6%) 순이었다. 흡연량은 매일 1개피 이상 192명(80.3%), 매주 1개피 이상 30명(12.6%), 매월 1개피 이상 17명(7.1%)이었다. 금연시도는 시도한 적 있음 204명(85.4%), 시도한적 없음 35명(14.6%)이었고, 금연 지속 기간은 1년 이상 56명(23.4%), 1개월 이내 49명(20.5%), 6개월 이내 43명(18.0%), 1주 이내 29명(12.1%), 2주 이내 27명(11.3%) 순이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

(N=239)

흡연 관련 특성	구분	n(%)	Mean±SD
가족 흡연 여부	있음	139(58.2)	
	없음	100(41.8)	
흡연 시작 연령 (yr)	10-19년	94(39.3)	20.47±4.61
	20-29년	131(54.8)	
	30년이상	14(5.9)	
총 흡연기간 (yr)	≤5년	53(22.2)	10.97±6.70
	6~9년	613(25.2)	
	10~14년	53(22.2)	
	15~19년	42(17.6)	
	20년≤	30(12.6)	
흡연량 (개피)	매일 1개피 이상	192(80.3)	
	매주 1개피 이상	30(12.6)	
	매월 1개피 이상	17(7.1)	
과거 금연시도 경험	있음	204(85.4)	
	없음	35(14.6)	
과거 금연지속 기간*	1주 이내	29(12.1)	
	2주 이내	27(11.3)	
	1개월 이내	49(20.5)	
	6개월 이내	43(18.0)	
	1년 이상	56(23.4)	

* 금연시도 경험자=204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주요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대상자의 금연 태도는 평균 74.02±37.78점이었고, 주관적 규범 18.50±30.40점이었고, 자기통제는 평균 55.80±5.01점이었다. 금연 자기효능감은 평균 18.70±5.52점이었으며, 금연 의도는 평균 13.33±5.40점이었다(표 3).

표3. 주요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N=239)

주요변수	Mean±SD	Possible Range	Observed Range
금연 태도	74.02±37.78	-126 ~ 126	-12 ~ 126
주관적 규범	18.50±30.40	-126 ~ 126	-102 ~ 126
자기통제	55.80±5.01	9 ~ 45	9 ~ 34
금연 자기효능감	18.70±5.52	13 ~ 65	39 ~ 57
금연 의도	13.33±5.40	3 ~ 21	3 ~ 2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4>.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 태도의 차이

(N=239)

일반적 특성	구분	금연태도		
		M±SD	t/F	*p*
연령	20-29	73.67±35.94	1.446	.230
	30-39	71.18±39.75		
	40-49	85.15±35.83		
	50대 이상	57.00±47.43		
결혼 유무	미혼	72.28±38.62	0.484	.617
	기혼	77.18±36.52		
	기타	79.20±33.25		
거주형태	가족과 동거	73.33±37.66	0.409	.664
	자취	75.23±38.76		
	기타	92.33±30.66		
건강상태	건강함	74.94±36.85	0.232	.793
	보통임	72.27±38.21		
	건강치 않음	76.74±39.85		
직업	생산기술직	89.88±40.59	0.678	.640
	전문직	76.52±35.62		
	경영관리직	75.00±48.43		
	사무직	72.40±36.89		
	사업자영업	105.50±28.99		
	판매서비스직	79.86±49.31		
직급	평사원	73.92±38.20	0.466	.628
	주임	80.14±34.64		
	대리	72.53±38.3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태도의 차이

(계속)

(N=239)

흡연 관련 특성	구분	금연 태도		
		M±SD	t/F	*p*
가족 흡연 여부	있음	75.64±37.79	0.781	.436
	없음	71.77±37.83		
흡연시작 연령	10-19년	78.32±39.10	1.012	.365
	20-29년	71.10±36.86		
	>30년	72.50±37.14		
총 흡연기간	≤5년	68.77±39.89	0.683	.605
	6~9년	72.07±34.34		
	10~14년	72.36±38.61		
	15~19년	73.86±42.20		
	20년≤	82.30±35.14		
흡연량	매일 1개피 이상	73.24±42.00	0.008	.992
	매주 1개피 이상	73.47±36.67		
	매월 1개피 이상	74.18±37.77		
과거 금연시도 경험	있음	72.03±41.32	-0.337	237
	없음	74.36±37.24		
과거 금연지속 기간	1주 이내	72.41±38.18	0.352	.842
	2주 이내	70.93±40.19		
	1개월 이내	71.73±32.46		
	6개월 이내	74.79±39.53		
	1년 이상	79.00±38.2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은 흡연관련 특성의 과거 금연 시도경험(t=-2.375, *p*=.018)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되는 연령과 결혼 유무, 거주형태, 건강상태 및 직업과 직급은 주관적 규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5>.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

(N=239)

일반적 특성	구분	주관적 규범		
		M±SD	t/F	*p*
연령	20-29	17.94±30.88	0.893	.445
	30-39	17.27±31.28		
	40-49	25.29±26.78		
	50대 이상	5.00±21.43		
결혼 유무	미혼	17.22±29.49	0.608	.545
	기혼	21.46±32.80		
	기타	12.40±14.52		
거주형태	가족과 동거	19.87±31.71	0.898	.409
	자취	14.95±26.36		
	기타	4.33±4.51		
건강상태	건강함	21.90±34.08	1.070	.345
	보통임	15.77±26.41		
	건강치 않음	17.26±30.56		
직업	생산기술직	29.75±30.62	1.428	.215
	전문직	29.43±43.29		
	경영관리직	7.08±10.79		
	사무직	17.82±29.50		
	사업자영업	25.00±32.53		
	판매서비스직	7.14±17.48		
직급	평사원	15.54±28.12	0.798	.452
	주임	19.86±31.47		
	대리	20.74±32.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

(계속)

(N=239)

흡연 관련 특성	구분	주관적 규범		
		M±SD	t/F	*p*
가족 흡연 여부	있음	19.09±30.68	0.350	.727
	없음	17.69±30.09		
흡연시작 연령	10-19	13.17±27.45	2.495	.085
	20-29	21.63±31.98		
	>30	25.00±30.49		
총 흡연기간	≤5년	20.58±31.69	0.626	.644
	6~9년	15.79±29.19		
	10~14년	17.53±30.05		
	15~19년	23.76±36.03		
	20년≤	14.70±21.82		
흡연량	매일 1개피 이상	30.24±39.12	1.656	.193
	매주 1개피 이상	13.73±23.36		
	매월 1개피 이상	18.21±30.38		
과거 금연시도 경험	있음	7.34±26.93	-2.375	.018
	없음	20.42±30.58		
과거 금연지속 기간	1주 이내	14.28±35.00	0.572	.683
	2주 이내	26.37±36.00		
	1개월 이내	21.53±27.15		
	6개월 이내	19.40±27.66		
	1년 이상	20.54±30.8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의 차이는 연령(F=3.748, *p*=.012)과 직급(F=3.438, *p*=.034)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7>.

일반적 특성에서 자기통제의 차이는 연령은 20-29세 평균 55.02±4.73이었고, 30-39세 평균 55.86±5.22, 40-49세 평균 57.32±4.72, 50대 이상은 평균 61.50±4.2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급은 평사원 평균 54.79±4.37, 주임 평균 56.41±4.49, 대리 평균56.52±5.5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의 차이

(N=239)

일반적 특성	구분	자기통제		
		M±SD	t/F	*p*
연령	20-29	55.02±4.73	3.748	.012
	30-39	55.86±5.22		
	40-49	57.32±4.72		
	50대 이상	61.50±4.20		
결혼유무	미혼	55.62±5.11	0.389	.678
	기혼	56.05±4.83		
	기타	57.20±5.50		
거주형태	가족과 동거	55.37±4.95	2.946	.054
	자취	56.95±4.99		
	기타	59.33±6.51		
건강상태	건강함	56.41±5.28	1.245	.290
	보통임	55.36±4.84		
	건강치 않음	55.40±4.75		
직업	생산기술직	54.63±4.90	1.893	.096
	전문직	56.26±6.02		
	경영관리직	59.69±5.22		
	사무직	55.50±4.81		
	사업자영업	55.00±2.83		
	판매서비스직	56.43±5.41		
직급	평사원	54.79±4.37	3.438	.034
	주임	56.41±4.49		
	대리	56.52±5.5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의 차이

(계속)

(N=239)

흡연 관련 특성	구분	자기통제		
		M±SD	t/F	*p*
가족 흡연 여부	있음	55.68±4.59	-.418	.677
	없음	55.96±5.57		
흡연시작 연령	10-19	55.07±4.81	1.608	.203
	20-29	56.26±5.03		
	>30	56.29±6.02		
총 흡연기간	≤5년	54.83±4.70	0.839	.501
	6~9년	55.80±4.82		
	10~14년	56.25±5.06		
	15~19년	55.79±5.24		
	20년≤	56.70±5.57		
흡연량	매일 1개피 이상	55.65±5.09	0.277	.758
	매주 1개피 이상	56.43±3.71		
	매월 1개피 이상	55.71±5.20		
과거 금연시도 경험	있음	55.54±4.65	-0.321	.748
	없음	55.84±5.08		
과거 금연지속 기간	1주 이내	54.90±5.29	1.068	.373
	2주 이내	55.15±3.97		
	1개월 이내	55.69±4.93		
	6개월 이내	55.63±4.38		
	1년 이상	56.95±5.9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흡연시작연령(F=4.388, p=.013)과 흡연량(21.048, p<.001)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 관련 특성에서 금연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흡연 시작연령은 10-19세는 평균 17.45±5.69세, 20-29세는 평균 19.40±5.38세, 30세 이상은 20.57±4.22세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량은 매일 1개피 이상은 평균 25.82±4.81, 매주 1개피 이상은 평균 20.37±4.71, 매월 1개피 이상은 평균 117.81±5.1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 자기효능감의 차이

(N=239)

일반적 특성	구분	금연 자기효능감		
		M±SD	t/F	*p*
연령	20-29	17.83±5.66	2.183	.091
	30-39	19.00±5.50		
	40-49	20.21±4.58		
	50대 이상	21.50±7.19		
결혼 유무	미혼	18.92±5.58	0.478	.620
	기혼	18.21±5.47		
	기타	19.40±5.03		
거주형태	가족과 동거	18.70±5.67	0.089	.915
	자취	18.61±4.93		
	기타	20.00±9.54		
건강상태	건강함	18.99±5.68	1.407	.247
	보통임	18.91±5.52		
	건강치 않음	17.26±4.99		
직업	생산기술직	19.25±6.34	1.333	.251
	전문직	16.70±5.87		
	경영관리직	21.31±5.12		
	사무직	18.77±5.50		
	사업자영업	20.50±3.54		
	판매서비스직	17.43±4.16		
직급	평사원	18.73±6.05	1.485	.229
	주임	17.10±4.47		
	대리	19.08±5.2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자기효능감의 차이

(계속)

(N=239)

흡연 관련 특성	구분	금연 자기효능감		
		M±SD	t/F	*p*
가족 흡연 여부	있음	18.13±5.18	-1.889	.060
	없음	19.49±5.90		
흡연시작 연령	10-19	17.45±5.69	4.388	.013
	20-29	19.40±5.38		
	>30	20.57±4.22		
총 흡연기간	≤5년	19.75±6.47	1.754	.139
	6~9년	17.85±5.16		
	10~14년	19.38±5.41		
	15~19년	17.36±4.82		
	20년≤	19.23±5.27		
흡연량	매일 1개피 이상	25.82±4.81	21.048	<.001
	매주 1개피 이상	20.37±4.71		
	매월 1개피 이상	17.81±5.19		
과거 금연시도 경험	있음	19.23±6.42	0.613	.540
	없음	18.61±5.37		
과거 금연지속 기간	1주 이내	17.38±5.16	0.913	.458
	2주 이내	19.15±5.75		
	1개월 이내	17.92±4.85		
	6개월 이내	19.19±5.39		
	1년 이상	19.14±5.7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의도 차이는 흡연 시작 연령(t=6.54, p=.002), 흡연량(t=6.75, p=.001), 금연시도(t=-3.56, p<.001)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4>.

일반적 특성에서 금연 의도의 차이는 흡연 시작 연령은 10-19세 평균 11.98±5.98이었고, 20-29세 평균 13.96±4.94, 30세 이상은 평균 16.50±2.6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의도의 차이는 흡연량은 '매일 1개피 이상'은 평균 16.71±3.35개피, '매주 1개피 이상' 평균 15.27±3.74개피, '매월 1개피 이상'은 평균 17.73±5.00개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거 금연시도 경험 여부는 '있음' 평균 10.40±6.27점, '없음' 평균 13.83±5.0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 의도의 차이

(N=239)

일반적 특성	구분	금연 의도		
		M±SD	t/F	*p*
연령	20-29	13.16±5.40	0.43	.731
	30-39	13.22±5.65		
	40-49	13.88±4.89		
	50대 이상	15.75±4.03		
결혼 유무	미혼	13.19±5.42	0.53	.592
	기혼	13.73±5.40		
	기타	11.60±5.27		
거주형태	가족과 동거	5.18±0.39	1.07	.346
	자취	6.09±0.81		
	기타	3.51±2.03		
건강상태	건강함	5.22±0.88	0.57	.567
	보통임	4.80±0.47		
	건강치 않음	6.06±0.61		
직업	생산기술직	12.25±4.40	0.76	.581
	전문직	12.61±5.33		
	경영관리직	14.08±5.02		
	사무직	13.31±5.49		
	사업자영업	19.50±2.12		
	판매서비스직	14.29±5.53		
직급	평사원	13.34±5.51	0.01	.991
	주임	13.45±5.81		
	대리	13.29±5.2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8.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의도의 차이

(계속)

(N=239)

흡연 관련 특성	구분	금연 의도		
		M±SD	t/F	*p*
가족 흡연 여부	있음	13.40±5.40	0.22	.827
	없음	13.24±5.43		
흡연 시작 연령	10-19	11.98±5.98	6.54	.002
	20-29	13.96±4.94		
	>30	16.50±2.62		
총 흡연 기간	≤5년	13.58±5.29	0.33	.804
	6~9년	13.40±5.35		
	10~14년	13.17±5.94		
	15~19년			
	20년≤	12.50±5.32		
흡연량	매일 1개피 이상	16.71±3.35	6.75	.001
	매주 1개피 이상	15.27±3.74		
	매월 1개피 이상	12.73±5.60		
과거 금연시도 경험	있음	10.40±6.27	-3.56	<.001
	없음	13.83±5.09		
과거 금연지속 기간	1주 이내	13.10±4.27	0.86	.492
	2주 이내	15.41±4.36		
	1개월 이내	13.84±4.78		
	6개월 이내	13.47±5.18		
	1년 이상	13.73±5.9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금연 의도의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금연의도와 금연 태도(r=.31, p<.001), 주관적 규범(r=.33, p<.001)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통제(r=.19, p<.004), 금연 자기효능감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N=239)

변수	흡연 시작연령(1)	금연태도 (2)	주관적 규범(3)	자기통제 (4)	금연 자기 효능감 (5)	금연의도 (6)
	r(*p*)					
1	1					
2	-.08 (.212)	1				
3	.14 (.030)	.21 (.001)	1			
4	.11 (.099)	.07 (.286)	.01 (.838)	1		
5	.19 (.004)	-.22 (.001)	-.07 (.261)	.19 (.004)	1	
6	.23 (<.001)	.31 (<.001)	.33 (<.001)	-.09 (.147)	.08 (.206)	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J. 대상자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34~.96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4~2.93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산출한 Dubin Wstson 값은 1.83으로 독립변수 간의 자기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을 만족하여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금연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흡연 시작 연령(β=0.18, p=.002), 과거 금연시도 경험 여부(β=0.19, p=.001), 금연 태도(β=0.31, p<.001), 주관적 규범(β=0.22, p<.001), 자기통제(β=-0.17, p=.003)로 파악되었으며, 금연 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연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2.95, p<.001), 전체 설명력은 29.0%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0. 대상자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39)

변수	B	SE	β	t	*p*	95% CI
상수	13.98	3.72		3.757	.000	6.65~ 21.31
흡연 시작 연령(yr)	1.69	0.53	0.18	3.164	.002	.64~ 2.73
흡연량 (ref.=매월 1개피 이상)						
매주 1개피 이상	-0.45	1.45	-0.03	-.311	.756	-3.31~ 2.41
매일 1개피 이상	-2.30	1.27	-0.17	-1.806	.072	-4.80~ .21
과거 금연시도 경험 여부 (ref.=없음)	2.84	0.85	0.19	3.338	.001	1.16~ 4.52
금연 태도	0.04	0.01	0.31	5.326	<.001	.03~ .06
주관적 규범	0.04	0.01	0.22	3.764	<.001	.02~ .06
자기통제	-0.18	0.06	-0.17	-2.974	.003	-.30~ -.06
금연 자기효능감	0.11	0.06	0.12	1.851	.065	-.01~ .24
R^2=.31, Adjusted R^2=.29, F*(p)*=12.95(<.0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V. 논의

본 연구는 여성 직장인의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의 연령은 20대, 30대 순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들 대부분은 직업인이었으며 이들의 직업은 사무직, 전문직, 경영관리직, 생산기술, 판매 서비스직, 사업자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정효은과 한정원(2017)의 한국성인 대상의 흡연 관련 연구에서 여성 흡연자 대부분은 20~30대였고,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직장인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문성미(2016)의 임금 근로자 연구에서도 흡연하는 여성의 연령대는 20~30대였고, 직업 관련 특성에서도 사무직 및 경영관리직에 종사자가 많았으며, 매일 흡연율이 가끔 흡연율보다 현저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들의 흡연시작 연령 대부분이 20대였으며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 분포가 많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안성미(2018)의 여성 흡연 근로자의 연구결과인 흡연 시작 연령 평균 19.33±5.14세로 흡연 시작 연령이 20대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들은 매일 흡연을 하는 대상자 비율이 높았다. 신정순(2018)의 흡연 여성의 금연시도 경험 과정 연구에서 현재 흡연 여성 모두 과거 금연 시도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 또한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흡연 여성 직장인의 연령, 직장 근무지, 첫 흡연 시작연령, 과거 금연 시도 경험 여부 등과 관련한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흡연 여성 직장인의 흡연 특성을 파악하여 금연과 관련된 실패와 재흡연, 금연의 성공과 금연의 유지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과 흡연 시작연령, 흡연량, 직급 및 금연시도 경험에서 각각의 변수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여성 직장인 대상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과의 금연 의도 차이를 보면, 흡연 시작 연령과 흡연량 및 과거 금연시도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옥과 이승연 (2000)의 연구에서 흡연 시작연령이 20세 이상인 경우 19세 이전인 경우보다 금연비율이 1.49배 더 높았으며, 흡연 시작연령이 빠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금연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흡연 시작연령이 빠를수록 금연 의도가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기 외(2008)의 연구에서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연이 어렵다고 해석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장혜영과 한송이(2016)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의 금연 의도 영향요인 연구에서 금연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금연 의도가 49.3%로 비 시도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량이 하루 반 갑 이하로 흡연량이 적은 경우 여성근로자의 금연의도가 높았다. 김이순과 김윤희(2011)의 연구에서도 과거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자가 재흡연율이 더욱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흡연 시작 연령과 흡연량 및 과거 금연시도 경험 등은 여성 직장인이 금연의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흡연 여성 직장인에게 금연 관련 중재를 제공할 때 반영되어야 할 특징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금연 의도와 관련된 주요변수 간의 상관 관계결과는 금연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김명숙(2005)의 연구에서 금연 의도와 금연태도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달랐지만 서영숙과 김영임(2013)의 중학생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금연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금연 의도가 높았다. 안혜영(200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금연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행위통제는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금연 의도 영향요인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서 '흡연 시작 연령', '과거 금연시도 여부'와 주요변인은 금연 태도와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가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여성 직장인은 흡연 시작 연령이 높을수록 금연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박경연(2014)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면 류소연(2011)은 흡연 시작 연령이 금연 의도 발생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연령 구분을 10대, 20대, 30대 이상으로 단계별로 구분한 류소연(2011)의 연구 결과는 20세 전과 후의 두 집단으로만 구분하여 그 민감도가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 흡연 시작 연령은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므로 여성의 금연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흡연 여성을 대상으로 금연 의도를 가지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 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금연시도를 해 본 과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금연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경연(2014)와 류소연(2011)의 연구에서 금연 의도에 대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순 외(2012)과 노영민 외(2019)의 연구 결과에서도 금연시도 경험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금연시도를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여성보다 금연 의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금연 시도경험 여부가 금연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성 직장인이 금연 중재 프로그램에 금연 재시도 및 지속의 강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요인들과 관련된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금연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금연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관련된 선행연구(박경연, 2014; 배진현 외, 2014; 손교영, 2008; 안성미, 2018)에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금연 의도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는 다르지만, 이란의 의대생의 대상 계획행위이론을 적용한 연구(Karimy, Zareban, Araban & Montazeri, 2015)에서도 금연 의도 예측 인자로 금연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한 바 본 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선행연구들이 금연 의도(김잔디 외, 2013; 서영숙, 김영임, 2013; 전형준, 2013)에 대하여 다른 척도를 사용한 차이점은 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금연의 태도가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금연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송미라와 김순례(2002)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배우자와 자녀의 금연에 대한 압박이 금연 의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이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압력이 영향을 주는 압력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측정해야 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였다. 여성 흡연문제는 건강상의 위해, 사회적 압력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흡연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으로 남성 흡연문제와 다른 시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김현숙 외, 2017).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여성 직장인으로 하여금 동료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면, 대인관계 유지의 중요한 목적 달성의 방법으로 흡연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직장인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규범을 사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 자기통제로 나타났다. 계획된 행위이론을 검증한 지연옥(1994), 송미라, 김순례(2002)와 진달래(2006)의 연구 결과와 유혜라 외(2009)의 연구결과에서 자기통제에 대한 마음이 강할수록 금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면 본 연구 결과는 자기통제는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금연 의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소현진(2011)의 연구에서 20대 흡연하는 여성은 흡연에 대한 욕구를 참지 못하여 자기통제가 낮으며 흡연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영(2001)의 대학생 대상 금연 행위 연구에서도 지각된 행위통제는 금연 의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성격 등이 금연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강경한 성격이나 자신을 너무 통제하면 흡연하는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되며 금연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관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서 상반된 결과를 볼 때, 자기통제와 금연 자기효능감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하여 직장인 여성이 흡연을 조절하고 스스로 참아 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금연 자기효능감이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반면, 대상자는 다르지만 공정현, 하영미(2013)의 연구에서 심근경색증 퇴원 환자의 금연에 긍정적 변화를 준 요인으로 금연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외(2010)의 연구에서 금연 결정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였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연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금연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인 경우 온라인을 통해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흡연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은경, 송미령, 2013). 본 연구 대상자들 역시 여성 직장임을 고려할 때 자신의 흡연을 공개하기 꺼려할 수 있으므로(하영미 등, 2018), 익명성 보장 및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금연 자기효능을 증진할 수 있는 금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흡연하는 직장여성의 금연 의도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흡연 시작 연령, 과거 금연시도 경험 여부,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자기 통제능력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할 수 있는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 직장인의 흡연특성과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금연 중재를 위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흡연 직장여성이 효과적인 금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직접 조사방법이 아닌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온라인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는 모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흡연하는 여성은 사회적 시선과 문화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차이로 개방적인 조사 참여가 어렵고, 선행연구들에 대한 과소보고의 문제점이 고려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상황을 고려하고, 여성 직장인의 시간 활용의 유용성을 반영한 조사과정으로 설문 작성의 신뢰성 및 대상자 선정의 확실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흡연 여성의 조기발견 및 금연을 위하여 자원 활용을 위한 흡연 여성 직장인의 금연에 참여하도록 도움이 되기 위한 연구였다. 추후 흡연 여성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시도와 적극적인 금연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흡연 직장여성의 조직 생활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였으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장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과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셋째,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질문에 대한 문항선정에 직장여성 상황을 고려한 질문 문항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의 도구를 선정하고 연구를 설계할 때 직장여성 흡연자에게 맞는 도구선정에 대한 사려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여성 직장인의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G시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유익성과 자료수집 및 소요시간, 비밀보장,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연구 참여와 중단과 거부를 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동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 금연 의도 관련 주요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금연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로 금연 의도와 금연 태도는 이혜원(2005)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주관적 규범은 Ajzen과 Madden (1986)의 표준 질문지 바탕으로 손교영(2010)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며, 금연 자기효능감은 공정현과 하영미(201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통제는 홍현기 외 3명(2012)이 한국형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20대가 105명(43.9%), 30대 96명(40.2%), 40대 34명(14.2%), 50대 4명(1.7%) 순이었다.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흡연시작 연령이 20대 131명(54.8%), 10대 94명(39.3%), 30대 이상 14명(5.9%)순 이었으며 흡연시작 연령은 평균 20.47±4.61이었다. 흡연량은 '매일 1개피 이상' 192명(80.3%), '매주 1개피 이상' 30명(12.6%), '매월 1개피 이상' 17명(7.1%)이었다. 과거 금연시도 경험은 '있음' 204명(85.4%), '없음' 35명(14.6%)이었고, 금연 지속 기간은 1년 이상 56명(23.4%), 1개월 이내 49명(20.5%), 6개월 이내 43명(18.0%) 1주 이내 29명(12.2%), 2주 이내 27명(11.3%) 순이었다.

2.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 의도는 흡연 시작 연령(t=6.24, p=.002), 흡연량(t=6.748, p=.001), 과거 금연시도 경험 여부(t=-3.5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 본 연구대상자의 주 변수인 금연 의도와 금연 태도(r=.31, p <.001), 주관적 규범(r=.33, p <.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 대상자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흡연 시작 연령(β=0.18, p=.002), 과거 금연시도 경험 여부(β=0.19, p=.001), 금연 태도(β=0.31, p<.001), 주관적 규범(β=0.22, p<.001), 자기통제(β=-0.17, p=.003)로 파악되었으며, 금연 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연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2.95, p<.001), 전체 설명력은 29.0%였다.

결론적으로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는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흡연 관련 특성 중 흡연 시작 연령과 과거 금연시도 경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흡연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금연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갖도록 하며, 자기통제에 대한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여성 흡연 층이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고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까지 성공할 수 있으며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성 직장인 흡연자만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데 본 연구결과가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직접 조사방법이 아닌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흡연하는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과 반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금연 의도가 높을수록 금연 유지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흡연 여성 직장인의 금연 의도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한 방법과 대상자의 중재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대상자가 금연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는 조력과 지원으로 이들의 장기적인 금연 유지가 가능하도록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추적관찰 방법과 중재 전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론적 기틀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금연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금연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강지연, 주은선(2014). 사무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9*(1), 31-54.

공정현, 하영미(2013). 금연 변화단계를 적용한 전화 상담과 문자메시지 제공 프로그램이 심근경색증 외래환자의 금연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4), 557-567.

김경아(2016). 일 지역 대학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7*(8), 465-476.

김경미, 김미진(2016).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한 잠재적 흡연 청소년의 금연에 대한 의도. *통합교육과정연구, 10*(2), 1-22.

김명숙(2005). 직장 흡연 남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흡연지식, 흡연 태도 및 금연 의도간의 관계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5*(2), 344-352.

김영희, 서남숙, 강혜영(2006). 일 농촌 지역 성인흡연자의 금연변화단계별 니코틴의존도, 흡연태도, 및 주관적 규범. *대한간호학회지, 36*(6), 1023-1032.

김영숙, 조현숙(2008). 여성 흡연자의 흡연 행태 및 관련 요인: 인천광역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자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5*(3), 125-138.

김은경, 송미령(2013). 흡연대학생의 제 특성과 금연 프로그램 선호도 분석.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15,* 184-192.

김이순, 김윤희(2011).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의 재흡연 양상 및 위험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2*(4), 365-376.

김잔디, 서제희, 신영전, 김창엽(2013). 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와 관련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77-602.

김정순, 유정옥, 김묘성(2012).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금연 의도 영향요인. *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사회간호학회지, 23(4), 358-365.

김진실, 강수정, 김대진, 최인영, 최병선(2018).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의 성별 금연 성공 요인. *대한보건연구, 44*(1), 17-30.

김현숙, 신동욱, 김신혜, 이언숙, 김상혁, 함상근, 주영수, 이도훈(2017). 여성 흡연-Hidden smoker. 대한금연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

김현숙, 박연환, 김영선(2018). 한국노년학의 보건・의료・건강영역 연구 동향. *한국노년학, 38*(3), 705-723.

김혜경(2010). 건강행동 변화를 위한 보건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금연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전략의 적용.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4), 177-188.

나승일. (2012).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2. 노영민, 이예진, 김지연, 노진원(2019). 성별에 따른 흡연자의 금연의도 관련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9), 321-328.

남인숙(2003). 여성 흡연에 대한 성차별적 사회 담론. *한국사회이론학회, 23*, 131-173.

도은수(2016).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금연 의도 구조모형. 대한간호학회지, 47*(2), 211-221.

리메일링, 하영미, 이정숙(2018). 사업장 남성 근로자를 위한 금연 힐링캠프의 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6*(6), 297-306.

류근혁(2010). 「*직작인의 금연정책이 금연성공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학위논문.

류소연, 신준호, 강명근, 박종(2011). 남자 흡연자의 금연 의도 관련 요인-호남지역 13개 지역 2010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2), 75-85.

문성미(2016). 국내 임금근로자의 흡연유형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 30*(13), 495-51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경연(2014). 한국 흡연 여성의 금연 의도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 21*(3), 253-263.

박용준, 이강숙, 박한울, 이예지, 구혜진(2017). 콜센터 근무 여성의 휴식시간을 이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환경조성으로 인한 금연효과.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34*(3), 95-102.

배진현, 도은수, 서영숙(2014).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한 뇌졸중 환자의 금연 의도에 미치는 예측요인. *노인간호학회지, 16*(1), 49-58.

서미경(2009). 여성 흡연의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152*(2009.6), 73-82.

서영숙, 김영임(2013). 흡연 중학생의 금연 의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ASE 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4), 471-479.

소현진(2012). 20대 흡연자 집단의 흡연행위 인지구조 탐색: 효과적인 금연캠페인 전략 개발을 위하여. *광고학연구, 23*(4), 77-96.

손교영(2010).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한 흡연 노인의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송미라, 김순례(2002).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 의도 및 금연 행위 예측을 위한. *지역사회간호학회, 13*(3), 363-372.

장혜영, 한송이(2016). 여성 근로자의 금연 의도 영향요인: 2014 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5*(4), 351-361.

정재선(2013). 세대와 흡연 특성이 금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8(7)*, 1-39.

송선희, 하은혜, 송동호(2002). 성인 남성의 흡연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447-461.

신정순, 김영(2018). 흡연 여성의 금연시도 경험과정. *질적연구, 19*(2), 142-155.

안성미(2018). 범*이론적 모델에 근거한 여성 흡연 근로자의 금연 변화단계 및 금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 원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안혜영(2001). 대학생의 금연 행위에 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7*(3), 371-382.

이상연, 이승욱(2000). 한국인의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5*(2), 41-50.

이성기, 권혁중, 임대준, 김경래, 모현희, 도현진 등(2008). 니코틴 의존도 평가검사로서 Heavy Smoking Index (HSI)의 유용성. *가정의학회지, 29*(6), 405-411.

이혜원(2005). *캠페인 메시지 유형과 관여도가 남자 대학생의 금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혜라, 이선혜, 유태균(2009). 금연 의도에 대한 계획된 행위이론의 적용 타당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6*(2), 49-61.

장혜영, 한송이(2016). 여성 근로자의 금연의도 영향요인: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5*(4), 352-361.

전형준(2013). 흡연자의 금연 결정과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금연정책에 대한 함의. *사회보장연구, 29*(1), 89-103.

정재선(2013). 세대와 흡연 특성이 금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8*, 1-39.

정지형, 홍석호, 장수미(2018).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음주와 흡연 행동의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보건사회연구, 38*(4), 367-397.

정효은, 한정원(2017). 한국 성인의 하드코어 흡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6기 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인문사회과학 기술융합학회, 7*(12), 513-53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연옥(1994). 군(軍) 흡연자의 금연 행위 예측을 위한 Theory of planned behavior 검증연구. *군진간호연구, 13*, 10-47.

진달래(2006).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한 성인 남성의 금연 행위 예측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 학술대회지, 12*, 156-157.

하영미, 박기수, 최혜옥, 양승경(2016). 백화점 서비스 및 판매업 종사 흡연 여성 근로자의 금연 자기효능감과 금연 준비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5*(3), 168-176.

하영미, 정미라(2015). 남성 근로자의 음주 동기, 음주거절 효능감, 직무 스트레스가 문제 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4*(1), 48-56.

하영미, 박기수, 최혜옥, 양승경(2016). 백화점 서비스 및 판매업 종사 흡연 여성 근로자의 금연 자기효능감과 금연준비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5*(3), 168-176.

홍현기, 김희송, 김경화, 김진하(2012).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 (BSCS)의 타당화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1*(4), 1193-1210.

최숙희, 김윤희(2018). 간호대학생의 금연 중재 의도와 관련된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431-440.

최은진 등, 보건복지가족부, 한국 사회연구원(2008).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및 국내 담배관련법 제도 정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통계청(2015).「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국민건강통계, http://knhanes.cdc.go.kr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국민건강통계」통계정보 보고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정보 보고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정보 보고서.

Ajzen, I., Madden, T. J.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5), 453-474.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0), 179-211.

Bellavia, A., Stilling, F., Wolk, A. (2016). High red meat intake and all-cause cardiovascular and cancer mortality: Is the risk modified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104*(4), 1137-1143.

DiClemente, C. C., Prochaska, J. O., Fairhurst, S. K., Velicer, W. F., Velasquez, M. M., & Rossi, J. S. (1991). The process of smoking cessation: An analysis of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and preparation stages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2), 295-304.

Dozois, D. N., Farrow, J. A., Miser, A. (1995). Smoking patterns and cessation motivations during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30*(11), 1485-1498.

Godin, G., Shephard, R. J. (1990). Use of attitude-behaviour models in exercise promotion. *Sports Medicine, 10*(2), 103-121.

Hughes, J. R., Brandon, T. H. (2003). A softer view of hardening. *Nicotine & Tobacco Research, 5*(6), 961-962.

Karimy, M., Zareban, I., Araban, M., Montazeri, A. (2015).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used to predict smoking behavior among a sample of Iranian medic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igh risk Behaviors & Addiction, 4(3):e24715.

Montano DE, Kasprzyk D. (2008).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integrated behavioral model. In: Glanz, K., Rimer, B.K. and Viswanath, K. Ed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Jossey-Bass, San Francisco, 67-96.

Surgeon General Reports on Smoking and Tobacco Use (2014). https://www.cdc.gov/, tobacco/data_statistics/sgr/index.htm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2004). High self 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Vennemann, M. M., Hense, H. W., Bajanowski, T., Blair, P. S., Complojer, C., Moon, R. Y., & Kiechl-Kohlendorfer, U. (2012). Bed sharing and the risk of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Can we resolve the debate?. *The Journal of Pediatrics, 160*(1), 44-4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간호학 석사학위 수료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여성 직장인의 금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여성의 직무 만족에 금연이 긍정적 영향을 주기에 본 연구자는 여성 직장인의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행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금연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통제,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의도를 척도로 조사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성 직장인의 금연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여성 직장인의 직무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구로써 여성의 건강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연구 대상자는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직장인으로 흡연을 하는 만20세부터 만50세 이하의 여성 직장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성 직장인으로 금연을 통해 직무 만족의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설문 도중 설문을 원치 않으시면 중도 포기도 가능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모두 통계로 처리되며,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온라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설문지에 응답해주신 선생님께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포인트로 지급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총 65문항의 체크리스트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들어오시면 편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응답이 가능하십니다.
https://www.panel.co.kr/user/main

연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을 시 연구책임자에게 연락해주세요.

연구자: 김선영 석사수료 (조선대학교) senzio@hanmail.net
김현례 교수 (조선대학교 조교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금연 태도

※ 다음의 내용을 읽고 금연 태도에 대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O표해 주세요.

문항 번호	설 문 내 용 (결과 신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올해 안으로 금연하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해 줄 것이다.	1	2	3	4	5	6	7
2	올해 안으로 금연하는 것은 담배로 인한 입 냄새를 없애 줄 것이다.	1	2	3	4	5	6	7
3	올해 안으로 금연하는 것은 피부노화를 방지 해 줄 것이다.	1	2	3	4	5	6	7
4	올해 안으로 금연하는 것은 향후 내가 폐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 줄 것이다.	1	2	3	4	5	6	7
5	올해 안으로 금연하는 것은 잇몸 질환 및 구강암으로부터 예방해 줄 것이다.	1	2	3	4	5	6	7
6	올해 안으로 금연하는 것은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예방해 줄 것이다.	1	2	3	4	5	6	7

문항 번호	설 문 내 용 (결과평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7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다.	-3	-2	-1	0	1	2	3
8	담배로 인한 입 냄새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다.	-3	-2	-1	0	1	2	3
9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3	-2	-1	0	1	2	3
10	폐암을 예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3	-2	-1	0	1	2	3
11	잇몸 질환 및 구강암을 예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3	-2	-1	0	1	2	3
12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3	-2	-1	0	1	2	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주관적 규범

※ 다음의 내용을 읽고 금연의 주관적 규범에 대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번호에O표해주세요..

문항 번호	설 문 내 용 (규범적 신념)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약간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담배를 피우지 않는 친구들은 내가 2주 이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2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은 내가 2주 이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3	배우자(애인, 동거인 포함)는 내가 2주 이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4	형제와 자매(가족)은 내가 2주 이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5	친척들은 내가 2주 이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6	의사나 간호사, 약사들이 내가 2주 이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문항 번호	설 문 내 용 (순응 동기)	매우동의하지않는다	동의하지않는다	약간동의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약간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7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친구가 귀하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까?	-3	-2	-1	0	1	2	3
8	평소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귀하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까?	-3	-2	-1	0	1	2	3
9	평소에 배우자(애인, 동거인 포함)가 귀하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까?	-3	-2	-1	0	1	2	3
10	평소에 형제와 자매(가족)이 귀하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까?	-3	-2	-1	0	1	2	3
11	평소에 친척들이 귀하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까?	-3	-2	-1	0	1	2	3
12	의사나 간호사, 약사들이 귀하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까?	-3	-2	-1	0	1	2	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자기통제력

※ 다음의 내용을 읽고 자기통제력에 대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O표해 주세요.

문항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1	2	3	4	5
2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나는 게으르다.	1	2	3	4	5
4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5	나는 재미있으면 나에게 해로운 일도 한다.	1	2	3	4	5
6	나에게 좀 더 자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7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하느라 종종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한다.	1	2	3	4	5
8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1	2	3	4	5
9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	1	2	3	4	5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1	2	3	4	5
12	나는 해가 될 만한 것을 거절한다.	1	2	3	4	5
13	내가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금연 자기 효능감

※ 다음은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흡연하게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지 각 상황에 대해 잘 읽으시고 O표 해 주세요.

문항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유혹 못함	어느 정도 유혹 못함	보통 (중간)	어느 정도 유혹함	매우 유혹함
1	친구들과의 모임	1	2	3	4	5
2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	2	3	4	5
3	매우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1	2	3	4	5
4	친구들과 대화하고 노는 분위기	1	2	3	4	5
5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할 때	1	2	3	4	5
6	어떤 대상이나 인물에 대해 화가 나 있을 때	1	2	3	4	5
7	가까운 친구가 담배 피우고 있을 때	1	2	3	4	5
8	잠시 내가 담배를 안 피웠다는 것을 느낄 때	1	2	3	4	5
9	일이 내 뜻대로 안되고 좌절될 때	1	2	3	4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금연 의도

※다음의 내용을 읽고 금연 의도에 관한 대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O표해 주세요.

문항 번호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올해 안으로 담배를 끊을 의도가 있다.	1	2	3	4	5	6	7
2	나는 올해 안으로 금연을 시도할 것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올해 안으로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2	3	4	5	6	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대졸　③ 대학원 졸업 이상

④ 대학/대학원 재학

3. 귀하의 결혼유무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4. 현재 거주형태는?

① 가족과 함께　② 자취　③ 하숙　④ 기타(　)

5. 귀하의 직업 및 부서는?

① 생산·기술직　② 전문직　③ 경영·관리직　④ 사무직

⑤ 사업·자영업　⑥ 판매·서비스직　⑦ 학생　⑧ 무직　⑨ 기타( )

6.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주간근무　② 야간근무　③ 주·야간근무　④ 기타

7. 귀하의 현재 직장에 근무한 연수는?

(　　)년 (　　)개월

8. 귀하의 직장 내 해당되는 직급은?

① 평사원/기사 ② 주임/계장 ③ 대리 ④ 과장 ⑤ 차장 ⑥ 부장 ⑦ 이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9.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① 매우 건강치 않음 ② 약간 건강치 않음 ③ 그저그렇다

④ 대체로 건강 ⑤ 매우 건강

10. 현재부터 최근 한달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흡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피운다. (한달간 흡연량은 :_____ 개피)

② 매주 최소한 1개피 이상 피운다. (일주이간 흡연량은 :_____ 개피)

③ 매일 최소한 1개피 이상 피운다. (하루 흡연량은:_____ 개피)

12. 귀하의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3.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때는 몇 세부터입니까? 만(_____세)

14.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신다면 흡연을 하신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약_____년_____개월)

15.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 정도 시도하셨습니까? (약 _____ 번)

16. 담배를 끊으려고 하셨을 때, 가장 길었던 금연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1주 이내 ② 2주 이내 ③ 1개월 이내 ④ 6개월 이내 ⑤ 1년 이상